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www.kmi.re.kr

발행일 2025년 8월 29일
편집·발행인 조정희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02 국내 항만 주요 동향
 15 국외 항만 주요 동향
 27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부산항, 자성대부두 임시 화물차 주차장 개장
- 광양항, 미 동부와 첫 직항 서비스 개설
- 인천항,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여객선 수요 증가 기대

국외 항만 주요 동향

- 중국, 7월 수출량 예상 상회하며 7% 이상 증가
- 미국 롱비치항 ITS터미널, 확장공사 착공
- APM Terminals, 인도 동해안 항만 개발에 10억 달러 투자 계획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25년 6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전월 대비 0.1% 소폭 증가
- '25년 상반기 시멘트 출하량 33년 만에 최저...건설업 침체 여파
- '25년 6월 자동차, 개소세 연장 효과로 내수 증가, 전기차 수출 17개월 만에 반등

0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① 자성대부두 임시 화물차 주차장 개장¹⁾

- 부산항만공사(BPA, Busan Port Authority)는 오는 9월 1일부터 북항재개발 2단계 예정지인 자성대부두 내 임시 화물차 주차장을 개장한다고 밝힘
 - '25년 9월 1일부터 '27년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부지면적은 7만 7,000㎡로 약 421개의 화물차가 동시 주차할 수 있는 규모임
 - 해당 임시 주차장 개장으로 '23년에 개장한 우암부두 임시 화물차 주차장은 오는 8월 31일에 운영을 종료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부지로 활용될 예정임
 - 주차 요금은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암부두 주차장 요금과 동일하게 월 22만 원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다만 1차년도 이후에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요금을 조정할 예정임
 - 한편, 자성대부두는 보안구역으로 상시 부두출입증을 보유한 차량만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화물차량 진입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상시 부두출입증을 보유한 차량들은 월주차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마련함
- BPA는 이로 인해 도심 내 화물차 주차난 해소 및 화물차 운전자의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5.08.05.),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3987>(2025.08.21. 검색)

2 시설물 안전점검에 AI 기술 적용²⁾

- BPA는 AI와 자율비행 드론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항만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5년 항만시설물 정밀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준공 후 30년 이상이 된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점검을 통해 구조적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빠른 조치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해 BPA는 자율비행 드론과 AI 기술을 융합한 시설물 점검방식을 도입하여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건축물 외벽 전반에 대한 점검을 수행함
 - 이를 통해 열 손실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하였으며, 확인된 결과물은 AI 기술로 1차 분석하고, 인력 점검 자료와의 교차검증을 통해 더 정밀한 점검결과를 도출함
- BPA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부산항 항만시설물 안전점검에 디지털 신기술 적용을 확산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5.08.12.),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4024>(2025.08.21. 검색)

3 '26년 크루즈선 231회 입항 예정³⁾

- 부산항의 크루즈선 입항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 이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크루즈선이 부산항에 입항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
 - '25년 7월 누적 기준 부산항에 크루즈선이 입항한 횟수는 116회이며, 관광객 수는 15만 3,361명을 기록함
 - 이는 지난해 크루즈선 입항 기록인 114회, 관광객 15만 2,891명의 규모를 상반기에 이미 넘어선 수치임
 - 일본에서 출발하는 중소형 크루즈선의 입항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는 약 211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6년에는 다섯 척의 크루즈선이 추가되면서 약 231회 크루즈선 입항이 계획되어 있음
- 한편, 크루즈선 업계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연간 7,000억~8,000억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어, 지역에서는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추진 중임
 -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산크루즈산업협회(가칭)'를 구성해 올 하반기 발족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선용품 공급, 급유, 승무원·선원 교대 등 여러 분야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고 있음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 한국일보(2025.08.2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1110290001948?did=NA\(2025.08.21. 검색\)](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1110290001948?did=NA(2025.08.21. 검색))

2) 인천항

①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여객선 수요 증가 기대⁴⁾⁵⁾

- 정부는 지난 8월 6일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를 통해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오는 9월 29일부터 ’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함

 - 중국은 ’24년 11월부터 우리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중국 국경절(’24년 10월 1일~7일) 전에 한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여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함
 - 이번 조치로 인천항을 통한 한중 카페리 여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국 국경절 기간 단체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인천항은 현재 중국으로의 10개 정기 카페리 노선을 운영 중이며, 이번 무비자 정책으로 침체되었던 여객선 노선의 재활성화가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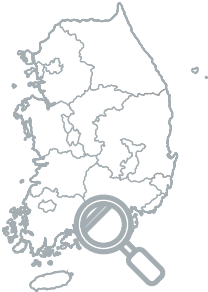
 - 무비자 정책 시행으로 인천-웨이하이, 인천-다롄 등 주요 노선의 여객 수요가 증가하고, 신규 단체 관광상품 개발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 및 한국 방문 수요가 높은 시기에 단체 관광객 유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정책을 계기로 중국 주요 도시 대상 마케팅을 강화하고, 크루즈 및 카페리 연계 관광상품 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힘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4) 국무조정실(2025.08.06.),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56843>(2025.08.25. 검색)5) 인천일보(2025.08.07.),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4567>(2025.08.25. 검색)

3) 여수·광양항



① 미 동부와 첫 직항 서비스 개설⁶⁾

-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 중 하나인 MSC가 운항하는 ‘알바트로스(Albatros)’ 서비스가 ’25년 8월 15일부터 미국 동부 주요 항만까지 확대 운항된다고 밝힘

 - 기존 알바트로스 서비스는 영국 펠릭스토우(Felixstowe), 독일 브레머하펜(Bremerhaven), 폴란드 그단스크(Gdansk) 등 북유럽 항만과 광양항을 연결하는 항로였음
 - 개편된 노선에는 미국 뉴욕(New York), 찰스턴(Charleston) 등 미 동부 주요 항만이 추가되어, 아시아-유럽-북미를 모두 기항하는 ‘세계 일주(Global Loop)’ 서비스로 재편됨
- 광양항에서는 이번 서비스 개편을 통해 미국 동부 항만과의 첫 직항 서비스가 실현됨

 - 현재 광양항은 아시아, 유럽, 중남미 등 100여 개 항만과 연결된 글로벌 정기 항로를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 동부와 직항은 이번이 처음임
 - 특히 뉴욕항은 미 동부 최대의 물류 거점 항만으로, 글로벌 해운 네트워크 내 상징성과 전략적 중요성이 큼
- 알바트로스 서비스는 16,0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 17척이 순환 투입되며, 전체 기항 순서는 광양-닝보-옌텐-싱가포르-펠릭스토우-런던게이트웨이-브레머하펜-그단스크-브레머하펜-뉴욕-찰스턴-텐진-대련-광양 순으로 구성됨

 - 첫 개편 항로에 투입되는 ‘MSC 베런자이르(Berangere)호’는 8월 15일 그단스크항을 출발해 약 60일 후인 10월 중순 광양항에 입항 예정임
- 이번 항로 개편이 광양항의 미주 수입 물동량 확대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상황 속에서 항만의 네트워크 전략과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6) 물류신문(2025.08.14.), <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723>(2025.08.25. 검색)

4) 울산항



① 내항화물선사 대상, 3분기 유류세 보조금 지원⁷⁾

-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청)은 울산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체 31개사를 대상으로 '25년 3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9월 중에 지급할 계획임
 - 유류세 보조금이란 「해운법」 제41조에 따라 내항화물선사의 경영 안정과 연안해운의 활성화를 위해 선박에 사용되는 경유에 부과하는 세액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임
 - 울산청은 2분기에 15개 사 35척에 대하여 5억 5천만 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3분기 유류세 보조금은 '25년 6~8월에 구입하여 내항화물 운송 목적으로 사용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를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9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받을 예정임
 - 보조금 지급 단가는 리터당 266.58원이며,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한시적으로 보조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8월까지 연장 시행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② 신항 남방파제 1-1공구 보강공사 준공⁸⁾

- 📍 울산청은 울산신항 남항지구의 피해 예방 및 전면해상 정온도 확보를 위해 실시한 '울산신항 남방파제(1-1공구) 보강공사'를 8월 14일 준공함
 - 보강사업 대상 시설물인 울산신항 남방파제 1단계는 '09년에 준공한 총연장 2.1km의 해상 외곽시설이며 1-1공구는 1.0km, 1-2공구는 1.1km로 구분됨
 - '울산신항 남방파제 보강공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 '기후변화에 따른 항만구역 내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의 결과에 따라 추진됨
 - '울산신항 남방파제 보강공사'는 '16년에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된 후, 약 7년간 총사업비 1,021억 원이 투입되어 울산신항 남방파제(1-1공구)에 6,200톤급 보강케이스 24함을 통해 보강되었으며, '26년 8월까지 전 구간을 보강 완료할 계획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7)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5.08.14.), <https://ulsan.mof.go.kr/ko/board.do?menuidx=873&bbsidx=126982>(2025.08.21. 검색)

8)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5.08.14.), <https://ulsan.mof.go.kr/ko/board.do?menuidx=873&bbsidx=126983>(2025.08.21. 검색)

5) 평택·당진항



① 미국 15% 상호관세 발효로 평택 수출기업 100% 직접 영향 전망⁹⁾

- 평택산업진흥원이 관내 수출기업 1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실태조사 결과 응답 기업 100%가 미국 관세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함

 - 53.3%가 4~6개월 내에 관세 영향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답해 단기간 내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줌
 - 자동차 1차 협력사들이 가장 빠르게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 평택항 배후 자동차 산업단지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 제조비용 상승(86.7%)이 가장 큰 피해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해외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46.7%), 수주 물량 감소(26.7%)가 뒤를 이음

 - 자동차 업계는 내부 원가 절감(77.8%)과 정부 지원 활용(66.7%)을 통한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반도체 업계는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임
 - 수출기업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지원은 세제 지원(93.3%)으로 나타남
- 평택시는 '24년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수출액 8위(약 23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64.3% 성장한 수출 도시로서의 위상을 굳혀왔음

 - 평택항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물류 인프라와 반도체, 미래차 등 첨단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성장 동력 역할을 해왔으나 상호관세라는 새로운 난관에 직면함
 - 정장선 평택시장은 관세 대응 전담 조직 신설 검토와 함께 해외 인증, 해외시장 개척 등 전방위적 지원 확대를 약속함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9) 일간경기(2025.08.14.), [https://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1435\(2025.08.24. 검색\)](https://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1435(2025.08.24. 검색))

6) 포항항



1 경상북도청, 영일만항 북극항로 대응 회의 개최¹⁰⁾

- 경상북도청의 환동해지역본부는 지난 8월 13일, 북극항로 개발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포항 영일만항, 북극항로 대응 회의’를 개최함
 - 회의는 한국해양대학교, 극지연구소, 북극항로협회 사무총장, 경북연구원, 포스텍 등의 관계자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나눔
 - 영일만항은 북극항로 전문항만으로 중요도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점을 문제점을 꼽으면서, 단순 화물 항만을 넘어 ‘특화 항만’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함
- 특화 항만 조성을 위해 전문가들은 북극항로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포항 영일만항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국가재정 투자와 항만 확장 필요성을 주장함
 - 구체적으로는 아시아 대륙 내 컨테이너 노선 확대, 북극항로 연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친환경·탄소중립 항만 인프라 도입, 크루즈 및 해양레저 산업과의 연계 등을 과제로 제시함
 - 특히 ‘포항 영일만항 북극항로’ 추진 전략에 국가 재정투자가 필수임을 전문가들은 강조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0) 매일신문(2025.08.18.),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81810523199459>(2025.08.21. 검색)

2 포항시, ‘영일만 국가에너지 복합기지 구축 기본구상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¹¹⁾

- 포항시는 경상북도와 영일만항을 활용한 국가에너지 복합기지 구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지난 7월 28일 해당 용역의 중간보고회가 개최됨

 - 중장기적 관점에서 영일만항을 에너지 자원의 수출입, 저장, 하역, 가공, 공급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에너지 항만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모델을 제시함
 - 구체적인 사업모델에는 수소·암모니아 등 청정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수입·저장·이송 기반 마련을 위한 수소복합터미널 구축,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 원유 및 LNG를 처리·저장·기화해 공급 및 수출할 수 있는 천연가스 자원기지 구축 등이 포함됨
- 한편, 포항시는 영일만항을 확장하는 개발 구상 용역을 동시 추진 중으로, 이번 용역 결과와 연계하여 영일만항을 에너지 거점 항만으로 조성할 방침이라 밝힘

 - 북극항로 개척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현재 약 34만㎡인 영일만항을 두 배 이상으로 확장하는 개발 구상 용역이 올 4월에 추진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1) 세계일보(2025.07.28.,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728513683?OutUrl=naver\(2025.08.21. 검색\)](https://www.segye.com/newsView/20250728513683?OutUrl=naver(2025.08.21. 검색)))

7) 동해·묵호항



1 동해해수청, 항만운송사업체 대상 안전계도 간담회 개최 및 특별점검 병행 실시¹²⁾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동해항 및 묵호항 내 항만운송사업체 및 관련 사업체를 대상으로 항만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안전계도 간담회’를 ’25년 8월 26일 개최함

 - 최근 전국 항만에서 하역업체 외에도 소규모 항만운송사업체에서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근로환경의 전반적인 안전강화가 시급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는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의 안전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특별점검과 병행하여 추진됨
 - 특별점검 기간: 2025.8.11.~8.29.
 - 참여기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 이번 간담회에는 동해·묵호항에 등록된 항만운송사업자(하역사, 검수사, 감정사, 검량사) 및 항만운송 관련 사업자(항만용역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선용품공급업) 등 약 100여 개 업체가 참여함

 -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와 위험성 평가 기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동해해수청은 항만 내 안전수칙과 최근 항만사고 사례를 공유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2) 동해지방해양수산청(2025.08.22.), <https://donghae.mof.go.kr/ko/board.do?menuidx=2536&bbsidx=127036>(2025.08.25. 검색)

8) 목포항



1 전남도, 목포항 경쟁력 강화 위해 신항 자동차부두 확장 등 현안 논의¹³⁾

- 전남도가 목포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신항 자동차부두 확장과 부두 기능 재배치 등 다양한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함
 -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을 위원장으로 목포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상공회의소, 목포항물류협회, 전남 서부항운노동조합, 목포신항만운영(주) 등 12명이 참석함
 - 신항 자동차부두 확장과 부두 기능 재배치는 해양수산부 ‘목포항 종합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종합적·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임
- 항만배후단지 입주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입주조건, 행정절차 등을 기업 대상으로 상세히 설명하여 배후단지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임
 - 연안여객터미널의 여객 차량 혼재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함
- 목포신항 배후부지의 현 지구단위계획과 물류·산업 중심 항만 기능 간 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검토를 추진함
 - 구체적 개발 방향을 확정하고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재정·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문 연구용역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임
 -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연말에 제4회 협의회를 개최하여 ’26년 해양수산부의 ‘목포항 종합발전계획’에 논의된 안건들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힘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13) 이뉴스투데이(2025.08.19.),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7446\(2025.08.24. 검색\)](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7446(2025.08.24. 검색))

9) 군산항

①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미 해군 MRO 기지 후보로 부상¹⁴⁾

- 정부는 한미 조선업 협력의 일환으로, 미 해군 군함에 대한 유지·보수·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를 수행할 전용 조선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미국에 제안한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MASGA)’ 프로젝트의 이행 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에 따라 미 해군 함정 MRO 전담 조선소 지정 및 조선업 협력 촉진을 위한 정부 자금 조성이 포함될 예정임
 - 우선 중형 조선소를 인수해 MRO 사업을 개시한 뒤, 향후 미국 관련 법령 개정 시 미 해군 함정 건조 사업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검토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도 MRO 기지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음

 - ’25년 8월 초, HD현대중공업은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41,000톤급 군수지원함 ‘앨런 셰퍼드(USNS Alan Shepard)’의 정기 정비 계약을 수주했다고 발표함
 - 이는 HD현대중공업이 처음으로 수주한 미국 MRO 프로젝트이며, 한미 관세 협상 이후 한국 조선사가 수주한 첫 사례로 기록됨
-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항을 미 해군 MRO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핵심 기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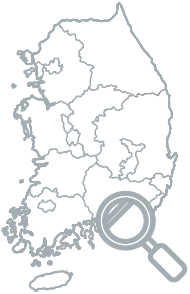
 - 하지만 HD현대중공업 측은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전환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군산조선소 매각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힘
 - 현재 군산조선소는 ’22년 말 재가동 이후 선박 건조 능력은 갖추지 못한 상태로, HD현대 울산조선소에 납품할 블록 제작만을 수행하고 있음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14) iMarineNews(2025.08.15.). [https://www.imarinenews.com/26100.html\(2025.08.25. 검색\)](https://www.imarinenews.com/26100.html(2025.08.25. 검색))

10) 마산항



1 마산합포구청 및 유관기관 마산항 해상 시찰 실시, 지역항만 발전 방안 모색¹⁵⁾

-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25년 8월 5일 마산항 해상 시찰을 실시하고, 지역 항만의 발전 방향과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함

 - 이번 시찰은 창원해양경찰서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서호관 마산합포구청장을 비롯해 창원해양경찰서장, 지역 유관기관장들이 참여함
 - 시찰은 마산항의 운영 현황 점검, 해양 안전 실태 파악, 지역경제 연계 가능성 검토 등 실질적인 항만 협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됨
 - 시찰단은 마산항 주요 부두 및 해상시설을 둘러보며, 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 항만 인프라 개선 필요성 및 관광·레저 기능 확대 방안 등 다각적인 발전 전략을 논의함
- 마산합포구청장은 마산항의 과거 산업화 역할을 언급하며, 마산항은 현재도 지역 물류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 중이며,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항만 재도약의 핵심이라고 강조함

 - 창원해양경찰서장은 물류·관광·산업이 융합된 복합항만으로의 전환을 위해 지역 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 의지를 밝힘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5) 경남일보(2025.08.05.), <https://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5787>(2025.08.25. 검색)

0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① 7월 수출, 예상 상회하며 7% 이상 증가¹⁶⁾

- 📊 중국의 7월 수출이 시장 전망을 크게 웃돌면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하였으며, 수입 역시 1년 만에 가장 큰 폭인 4.1% 증가세를 기록함
 - 다만, 對미 수출의 경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1.7% 감소함
 - 미국 수출 감소분은 주로 동남아로의 수출 증가로 상쇄되고 있으며, 對 아세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함
 - 품목별로 살펴보면 희토류 수출이 전년 대비 21.4% 증가, 자동차와 반도체 역시 각각 26.0%, 16.0% 증가함
 - 수입의 경우에는 대두 수입이 18.4%, 원유 수입이 11.5% 증가함
 - 전문가들은 올해 수출 증가세가 중국 경제를 강하게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나, 기업들의 선적 앞당기기 모멘텀이 곧 약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함
- 📊 한편, 지난 8월 11일 미국과 중국은 관세 유예 조치를 90일간 추가 연장하는 데 합의함¹⁷⁾
 - 고율 관세 유예에 따라 미국의 대중 관세는 30%, 중국의 대미 관세는 10%로 90일간 유지될 예정임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6) CNBC(2025.08.06.), <https://www.cnbc.com/2025/08/07/china-july-trade-data-exports-growth-beats-estimates-as-imports-recover.html>(2025.08.21. 검색)

17) 뉴시스(2025.08.12.),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12_0003287772(2025.08.21. 검색)

2 중국의 글로벌 항만 전략과 파나마 운하 갈등¹⁸⁾

지난 20여 년간 중국은 전 세계 항만에 발판을 마련하여 주요 해상운송 경로와 전략적 자원 거점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해 옴

- 중국은 말라카 해협 및 수에즈 운하 등 해상 병목 지점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항만 투자에 나섬
- 특히 '13년 일대일로 전략 추진에 따라 항만 투자가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최소 52개 해외 항만 프로젝트에 참여함
- 또한, '15년 군사전략에서 해외 이익 보호 명시하고 해병대 400% 증강 계획 발표 등을 통해 파키스탄 과다르항 등 중국 운영 항만에 병력을 배치함
- 미국은 중국의 글로벌 항만 전략에 따라 중국의 항만 투자를 차단하거나 '전략항만 보고법(Strategic Ports Reporting Act)' 발의를 통해 중국 항만의 지배 동향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지분 확보를 두고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25년 3월 홍콩 CK허치슨의 43개 항만 운영권(파나마 운하 2곳 포함) 미국 블랙록과 스위스 MSC가 인수 추진하려 하였으나, 중국이 반독점 조사를 나서면서 결국 협상 기한이 만료됨
- 협상 기한 만료 후 중국의 COSCO는 운영권의 20~30% 지분 확보를 시도하고 있으며, 미국 측은 파나마 2곳 항만을 제외한 41개 항만에 대한 지분을 COSCO가 확보하는 방향의 옵션을 논의 중임¹⁹⁾

중국의 이러한 항만 전략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에너지·식량·자원 확보와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평가됨

-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미·중 갈등은 그 상징적 전장으로, 결과에 따라 글로벌 해운과 지정학적 균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8) APF Canada(2025.08.13.), <https://www.asiapacific.ca/publication/explainer-chinas-global-port-play-and-panama-canal>(2025.08.21. 검색)

19) Financial Times(2025.08.08), <https://www.ft.com/content/dcc346a3-0518-4938-bc82-b3c4b6f61b5b>(2025.08.21. 검색)

2) 아시아



1 싱가포르항, “digitalPORT@SG”를 통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²⁰⁾

-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 Maritime and Port Authority)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digitalPORT@SG 플랫폼을 운영 중임

 - 해당 플랫폼은 기존에 선박의 입항을 위해 MPA, 출입국관리청(ICA), 환경청(NEA) 등 세 기관에 각각 제출해야 했던 약 30여 개 항목의 데이터를 단일 창구로 통합함
 - 기존에는 최대 16개의 양식을 제출해야 했지만 하나의 통합 서식으로 대체되어 이를 통해 연간 약 10만 시간에 달하는 행정 업무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힘
- 아울러, digitalPORT@SG는 AI 기반의 Just-In-Time(JIT) 입출항 최적화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선박의 도착 및 출항 일정을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중임

 - 도입 초기에는 컨테이너선에만 적용되었지만 추후 유조선과 벌크선 등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정박 시간 단축과 연료 소비 절감,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실시간 정박지 관리 시스템도 도입되어 선박의 대기 시간과 혼잡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항만 운영의 흐름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음
- MPA는 향후 digitalPORT@SG를 단순한 플랫폼을 넘어 세금계산서 발행, 월별 계좌 내역 제공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 생태계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20) Open Gov Asia(2025.08.18.), [https://opengovasia.com/singapore-mpa-navigating-port-services-into-a-digital-future/?c=kr\(2025.08.25. 검색\)](https://opengovasia.com/singapore-mpa-navigating-port-services-into-a-digital-future/?c=kr(2025.08.25. 검색))

2 니가타항 만다이 테라스(万代 テラス), 미나토 녹지 PPP 사업 승인²¹⁾

- 일본 니가타현은 니가타항의 만다이지마(万代島) 지역 항만 녹지 공간인 ‘만다이트라스’에 대해 ‘미나토녹지PPP(みなと緑地PPP)’ 제3호로 공식 승인**
 - 이는 '22년 12월 항만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미나토 녹지 PPP’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전국적으로는 고베항, 오사카항에 이어 세 번째 사례임
- 미나토 녹지 PPP는 민간 사업자의 창의성과 자금을 활용하여 녹지 공간 내 수익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임**
 - 이는 항만관리자들이 재정 한계로 인해 항만 녹지 및 공공시설의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사업 수익의 일부를 녹지 리뉴얼과 유지관리로 환원하는 구조임
 - 이를 통해 노후화된 항만 공간을 활성화시키고, 이용자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해당 제도는 행정재산인 항만 녹지를 약 30년 동안 민간에 장기 대여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 사업자는 카페, 상점 등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사업자는 벤치 등 공공시설 설치, 청소 등의 유지관리를 병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항만 공간의 질적 향상 및 시민 친화적인 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됨
- 만다이 테라스 사업은 약 7,560㎡의 항만 녹지 중 5,381㎡를 대상으로 하며, '25년 8월 15일부터 '55년 3월 31일까지 약 30년간 시행될 계획임**
 - 설계와 운영 계획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는 바비큐장, 상업용 임대 공간, 유람선용 부두 등이 신설될 예정임
 - 또한, 꽃밭, 벤치, 수경시설(물놀이장, 모래놀이터) 등의 휴식 공간도 함께 조성되며, 사업자는 수익금 일부를 활용해 청소, 초목 관리 등의 정비를 수행할 계획임

일본 니가타항 만다이 테라스 사업 조감도



자료: 국토교통성 보도자료(2025.08.15.), https://www.mlit.go.jp/report/press/port04_hh_000530.html(2025.08.25. 검색)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21) 국토교통성 보도자료(2025.08.15.), https://www.mlit.go.jp/report/press/port04_hh_000530.html(2025.08.25. 검색)

3 APM Terminals, 인도 동해안 항만 개발에 10억 달러 투자 계획²²⁾

-  AP Moller-Maersk의 터미널 운영 부문인 APM Terminals가 인도 벵골만 동해안 항만 당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동방 관문’ 구축을 위한 항만 개발을 추진함
 - 안드라 프라데시(Andhra Pradesh)주를 동부 물류 허브로 조성한다는 비전의 일환으로 약 1,000km 해안선을 따라 48km마다 항만, 어항, 어류 양육장 등 해양 인프라를 개발할 계획임
 - 현재 인도 제3위 물동량 처리 항인 비샤카파트남을 포함해 8개 해안 지역에 15개 항만이 있으며, 5개 상업항이 운영 중이고 4개 신규 프로젝트가 2026년까지 완공 예정임
-  APM Terminals는 마칠리파트남(Machilipatnam), 물라페타(Mulapeta), 라마야파트남(Ramayapatnam) 항만과 인프라 개발에 집중할 예정임
 - 이들 3개 항만 중 라마야파트남 항만이 가장 진척도가 높아 1단계 공사의 64%가 완료되었으며, 마칠리파트남과 물라페타 항만도 1단계 개발의 40% 이상을 완료함
 - APM Terminals는 첨단 화물 처리 기술 도입, 지속가능한 운영, 컨테이너 및 벌크 화물 처리 효율성 향상 분야에서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
-  APM Terminals는 '04년부터 인도에 진출하여 구자라트 피파바브(Gujarat Pipavav) 항만과 뭄바이 게이트웨이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음
 - 구자라트 피파바브 항만은 인도 최초의 민관협력 항만 운영 사례로 연간 135만 TEU 처리 능력을 보유함
 - 뭄바이 게이트웨이 터미널은 인도 최대 컨테이너 시설로 현재 연간 200만 TEU 이상의 처리 능력 확장을 추진 중임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22) The maritime executive(2025.08.22.), <https://maritime-executive.com/article/apm-terminals-plans-1b-investment-to-develop-indian-ports>(2025.08.24. 검색)

4 DP World, 제벨 알리항 자동차 물류 역량 대폭 확대²³⁾

- DP World가 제벨 알리항 터미널 4에 260만 평방피트 규모의 자동차 야드를 신설하여 자동차 물류 역량을 대폭 확대함
 - 1만 3,000 CEU(Car Equivalent Units)가 추가되어 총 처리 용량이 7만 5,000 CEU로 증가함
 - 800m 길이의 선석에서 최대 3척의 Ro-Ro 선박을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
- 터미널 1에서 터미널 4로 Ro-Ro 운영을 이전하여 선석 확보, 선박 회전율 단축, 항만 공간 최적화를 통해 증가하는 수요와 미래 물량에 대응함
 - 이번 확장은 강력한 자동차 물동량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제벨 알리항은 '25년 상반기 54만 5,000대를 처리하여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함
 - 전체 처리량 중 수입이 65%를 차지하며 주요 수입국은 중국, 일본, 태국, 인도, 한국임
- 이 프로젝트는 DP World의 광범위한 자동차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두바이에 2,000만 평방피트 규모의 첨단 자동차 시장 개발도 포함됨
 - 관련 확장 사업으로 지난달 안트베르펜-브뤼헤항에 8,250m² 규모의 화학물질 창고를 개설하여 유럽 위험물 물류에서의 입지를 강화하였음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23) maritimegateway(2025.08.08.), <https://www.maritimegateway.com/dp-world-boosts-automotive-capacity-with-expanded-vehicle-yard-at-jebel-ali-port/> (2025.08.24. 검색)

3) 미주



① 미국 롱비치항 ITSTER미널, 확장공사 착공²⁴⁾

- 터미널운영사인 인터내셔널트랜스포테이션서비스(ITS)가 G부두에 위치한 터미널의 확장공사에 착수함**
 - 확장공사에는 총 3억 6,500만 달러(약 5,041억 원)가 투입되며, 초대형 컨테이너선 접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안벽 길이는 560피트(약 171m)를 연장하여 총 3,400피트(약 1,036m)를 갖추고 유희 수역을 매립하여 19에이커(약 7만 7,000㎡) 부지를 신규 조성할 계획임
 - '28년 12월이 준공 목표이며, 완공 시 1만 8,000TEU급 컨테이너선 2척의 동시 접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ITSTER미널 확장으로 항만의 처리능력 및 공급망 강화가 기대됨**
 - 신규 컨테이너 야드가 신설되면서 화물 처리능력은 최대 50%가 증가할 전망이며, 매립에는 롱비치항 퇴적토 250만 입방야드(약 191만 m³)와 인접한 뉴포트항의 준설토가 활용될 계획임
 - 그 외, 현지 고용 창출과 미국산 자재 사용으로 인한 공급망 강화, ITS 투자에 따른 항만 효율성과 수용력 향상 효과가 기대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4) 코리아워킹가제트(2025.07.28.),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num=145054(2025.08.21. 검색)

2 HMM, 브라질 산투스항 초대형 복합 물류 터미널 입찰 검토²⁵⁾

-  HMM은 브라질 산투스항에 조성되는 초대형 복합 물류 터미널인 테콘10(Tecon 10) 입찰 참여를 검토하고 있음
 - 브라질 정부는 산투스항 62만 m² 부지에 연간 350만 TEU 처리가 가능한 초대형 복합 물류 터미널인 테콘10 조성을 계획하고 있음
 - 운영권은 20~30년간 부여할 예정이며, 선사가 자사 터미널 보유 시 선석 배정·하역 일정 등에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운 경쟁력 제고 효과가 기대됨
 - HMM은 글로벌 터미널 확보 전략을 본격화하면서 주요 항만의 신규 개발·운영권 입찰 시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산투스항의 테콘10 사업에도 입찰을 검토하고 있음
 - HMM 최근 스페인 알헤시라스 터미널 확장에 3,500만 유로(약 560억 원)를 투자했으며, 인도 바드반 신항만 개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글로벌 인프라 네트워크 확대를 지속하고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5) 중앙이코노미뉴스(2025.07.22.), <https://www.joong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6809>(2025.08.21. 검색)

4) 유럽



1 유럽, 해상풍력 목표 달성 위해 항만 인프라와 선박 확충 시급, 2030년까지 64억 유로 추가 투자 필요²⁶⁾

- 유럽이 해상풍력 용량을 현재 36.6GW에서 2030년 84GW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운 공급망과 항만 인프라에 대한 적시 투자가 필수적
 - 현재 유럽은 연간 약 10GW의 해상풍력을 설치·유지할 수 있으나, 2030년 에너지 안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간 최소 10GW, 2030년 이후에는 15GW를 설치해야 함
 - 지난 3년간 유럽 전역에 항만 인프라와 신규 선박에 67억 유로가 투자되었으나 추가로 64억 유로가 더 필요한 상황임
- 항만이 해상풍력 장비 운송, 운영·유지보수 기지, 현지 풍력에너지 공급망 구축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함
 - 지난 3년간 44억 유로가 항만 인프라에 투자되어 2030년 목표 달성은 가능하지만, 2030년 이후 배치를 위해서는 추가로 24억 유로의 항만 투자가 필요함
 - 유럽위원회가 준비 중인 EU 항만 전략은 자금 조달 강화, 허가 절차 간소화, EU 차원의 계획 수립을 통해 항만 개발을 지원할 예정임
- 해상풍력 부문은 터빈, 기초구조물, 변전소, 케이블 설치 전용선 등 약 80여 종의 선박을 사용하고 있음
 - 지난 3년간 최소 23억 유로가 추가 선박에 투자되었으나, 15MW 이상 차세대 터빈을 처리하기 위해 추가로 40억 유로의 선박 투자가 필요함
 - EU 해운산업 전략은 해상 운영의 탈탄소화를 지원해야 하는데, 현재 해상풍력 생애주기 배출량의 최대 20%를 차지하는 해운 운영을 전기, 암모니아, 수소 등 청정연료로 전환해야 함

26) windeurope(2025.08.04.), [https://windeurope.org/newsroom/europe-needs-stronger-ports-and-more-vessels-to-meet-its-offshore-wind-goals/\(2025.08.27. 검색\)](https://windeurope.org/newsroom/europe-needs-stronger-ports-and-more-vessels-to-meet-its-offshore-wind-goals/(2025.08.27. 검색))

2 마약 밀수와 부패로 신음하는 유럽 항만, EU POSEIDON 프로젝트로 조직범죄 대응 방안 모색²⁷⁾

- 컨테이너화 확산으로 글로벌 무역이 효율화되면서 동시에 밀수 활동도 급증하여 유럽 항만들이 마약 밀수의 주요 관문이 되고 있음
 - 유럽위원회 추산에 따르면 EU 세관 당국의 마약 압수량 중 거의 70%가 항만에서 발생하고 있음
 - 유럽 내 대마초, 코카인, MDMA 등 마약 소비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밀수 수요가 확대됨
- EU가 자금을 지원하는 POSEIDON 프로젝트가 항만 운영에서의 부패와 조직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심층 분석과 대응책을 마련함
 - 에코리스가 주도하고 무르시아대학교, 겐트대학교, 이탈리아 SAFE 재단 등이 참여하여 부패 취약성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도출함
 - 항만의 규모, 물동량, 경제 여건, 관련 법제도 등 거시적 요인들이 부패와 범죄 문제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됨
- 벨기에 안트베르펜항이 유럽에서 코카인 소비량 1위를 기록하며 마약 밀수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함
 - 안트베르펜에서 572회, 400kg 이상의 코카인이 압수되었고, 로테르담에서는 554회, 약 164kg이 압수됨
 - 마약 관련 부패와 범죄가 안트베르펜, 브뤼셀, 로테르담, 암스테르담 등 주요 항만 도시의 거리로 확산되어 총격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
- EU 마약청과 세계관세기구는 관련 보고서에서 대량 마약 압수는 조직범죄 네트워크가 EU 항만에 상당히 침투했으며 일부 항만 직원의 부패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경고함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27) consultancy(2025.08.07.), [https://www.consultancy.eu/news/12244/drug-related-corruption-and-crime-plague-european-seaports\(2025.08.27](https://www.consultancy.eu/news/12244/drug-related-corruption-and-crime-plague-european-seaports(2025.08.27). 검색)

5) 오세아니아



1 시드니항(보타니항)~웨스턴시드니 연결 '전용 화물철도 및 복합환승터미널' 사업 추진²⁸⁾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시드니항(보타니항)에서 웨스턴시드니 지역까지의 물류 수송망 강화를 위해 '웨스턴시드니 화물철도 및 복합환승터미널' 건설 사업을 공동 추진 중임

 - 해당 사업은 기존 철도물류망의 단절 구간을 보완하고, 시드니항에서 웨스턴시드니로 향하는 수입 컨테이너의 육상수송 병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현재 사업 1단계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는 양 정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투입해 완료한 상태임
- 해당 사업은 NSW 주정부의 「화물·항만 계획(NSW Freight and Port Plan 2018-2023)」에서 핵심 과제로 명시되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주 차원의 물류 인프라 전략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음

 - 독립 물류정책 개혁 자문단(Independent Freight Policy Reform Panel, 2025)은 보고서를 통해 “웨스턴시드니 화물철도와 맘르로드(Mamre Road) 복합물류단지는 향후 물류체계 개혁의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동원해 조속히 계획 수립 및 실행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함
- 본 철도 노선은 시드니 남부 Leightonfield 인근의 기존 Southern Sydney Freight Line과 M7 고속도로 주변에 지정된 보호회랑(protected corridor)을 연결하는 형태로 계획됨

 - 복합환승터미널(IMT)은 맘르로드 산업단지(Mamre Road Industrial Precinct) 내에 조성될 예정임
- 이번 사업이 완공되면 시드니항의 수출입 컨테이너 처리와 내륙 물류 기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웨스턴시드니 지역의 산업물류 중심지로서의 기능도 강화될 전망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8) NSW Government(2025.08.11.), [https://www.transport.nsw.gov.au/corridors/wsfl\(2025.08.25. 검색\)](https://www.transport.nsw.gov.au/corridors/wsfl(2025.08.25. 검색))

6) 아프리카



1 더반항 Bayhead Road 개보수 사업 2단계 진입, 항만 접근성 및 물류 신뢰성 제고²⁹⁾

- 남아프리카공화국 트랜스넷 항만공사(TNPA)는 더반항 주요 물류 통로인 Bayhead Road의 개보수 사업이 '25년 6월 착공 이후 1단계를 마치고 현재 2단계 공사에 순조롭게 진입했다고 발표함

 - 본 사업은 항만 접근성과 도로 안전성 향상을 통해 더반항의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과 물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인프라 프로젝트임
- 2단계 구간은 출항 방향으로는 Shell 주유소 Rotterdam 교차로, 입항 방향으로는 Wagtail Langeberg 교차로 사이의 도로를 포함함

 -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은 기존 아스팔트 제거, 비트멘 안정처리 자재(BSM) 기반층 시공, 아스팔트 포장, 배수구(맨홀), 도로 경계석, 측구 정비 등이며, 도로의 구조적 내구성과 배수 용량 강화를 중점으로 함
- 도로 물리적 개선 외에도, TNPA는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별도 조치를 병행 중임

 - 신규 도로 표지판, 차선 도색, 반사 도로 스티드, 과속 저감 장치 등 교통량이 집중되는 Bayhead 물류 지구의 안전한 차량 흐름을 위한 조치가 포함됨
- TNPA는 Bayhead Road 사업이 더반항의 물류 신뢰성과 처리 효율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남아공의 주요 무역항만으로서 지속적인 기반시설 현대화는 글로벌 공급망 내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9) Engineering News(2025.08.19.), [https://www.engineeringnews.co.za/article/progress-on-bayhead-road-upgrade-enhances-port-access-2025-08-19\(2025.08.25. 검색\)](https://www.engineeringnews.co.za/article/progress-on-bayhead-road-upgrade-enhances-port-access-2025-08-19(2025.08.25. 검색))

03 품목 및 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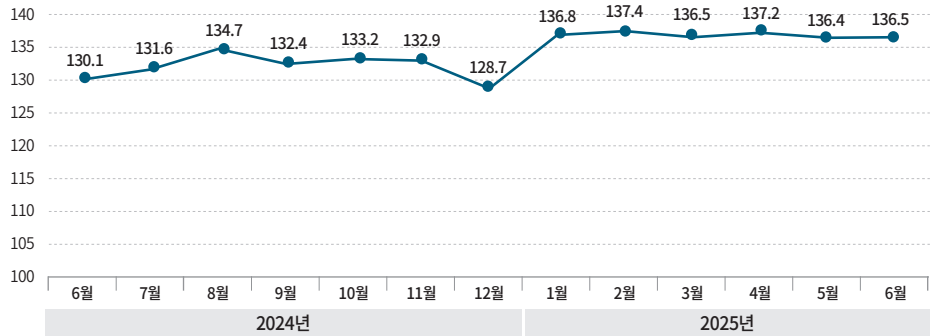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처리지수

1 '25년 6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전월 대비 0.1% 소폭 증가³⁰⁾

- '25년 6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는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 4.9% 증가한 136.5p를 기록함
 -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세계 무역의 지속적인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월 대비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중국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 지수는 151.2p로 전월 대비 0.1% 소폭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함
 - 유럽 항만의 처리량은 115.5p로 전월 대비 1.1% 하락하면서 전월의 상승세를 모두 상쇄시킨 것으로 나타남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Total	130.1	131.6	134.7	132.4	133.2	132.9	128.7	136.8	137.4	136.5	137.2	136.4	136.5	0.1	4.9
China Index	145.9	147.3	150.0	147.5	148.6	144.4	136.7	154.5	156.8	152.2	154.8	151.3	151.2	-0.1	3.7
North Range Index	110.1	111.3	114.4	112.7	115.1	115.3	108.7	114.9	112.6	114.1	115.6	116.8	115.5	-1.1	4.9

주: 2015=100, 계절조정
자료: [https://www.isl.org/index.php/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dex-0625\(2025.8.21. 검색\)](https://www.isl.org/index.php/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dex-0625(2025.8.21.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0) ISL(2025.07.25.), [https://www.isl.org/index.php/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dex-0625\(2025.08.21. 검색\)](https://www.isl.org/index.php/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dex-0625(2025.08.21. 검색))

2 트럼프 관세 관련 법원 판결에 따른 컨테이너 해상운송 영향³¹⁾

-  **현재 심리 중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소송 최종 결정이 10월 대법원으로 넘어갈 예정이며, 이에 따라 미국 컨테이너 해상운송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통한 관세 부과가 불법이라고 판결할 경우, 미국 수입업자들은 관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컨테이너 해상운송 수요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트럼프 관세가 최종적으로 무효화되면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해져 기업의 유동성과 수입 물량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25년 5~6월 관세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월 180억 달러 증가하였으며,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화하면 환급 규모는 1천억 달러 이상이 될 수 있음
 - 반대로,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권한을 인정하면 현행 관세가 고착화되어, 장기적으로 모든 기업이 높은 관세를 사업 모델에 반영해야 하므로 해상운송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무효화가 미국 경제에 대공함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함**

 - 관세 권한을 박탈하게 되면 미국은 재정적 파탄에 빠질 것이며, 수백만 개의 일자리 상실 및 국민 저축과 사회보장제도의 위기 등을 경고함
 -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해당 주장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였으며, 다른 나라와의 합의는 구속력이 없는 투자 약속에 불과하여 미국이 값을 돈은 없으며, 실제 환급 대상은 이미 납부한 IEEPA 관세뿐이라고 주장함
 - 골드만삭스 역시 IEEPA 관세 부담의 64%는 미국 기업, 22%는 소비자, 14% 해외 수출업자 부담하고 있어, 결국 관세 비용을 주로 부담하는 것은 미국인이라고 지적함
-  **전문가들은 관세 자체보다는 불확실성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불확실성 지속 시 기업 의사결정 지연 및 물류·운송 업계 투자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경고함**

 -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1974년 무역법(Trade of Acting 1974)’에 따라 150일간 15% 일괄 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있는 등 IEEPA 관세를 대체할 수단이 있어 법원 판결과 함께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1) Lloyd's list(2025.08.14.), <https://www.lloydslist.com/LL1154532/How-court-ruling-on-Trump%E2%80%99s-tariffs-could-impact-container-shipping>(2025.08.21. 검색)

2) 양곡



1) **우크라이나, '25년 곡물 수확 증가 전망 및 '26년 겨울밀 재배 확대 계획³²⁾**

- 🔍 **우크라이나 정부는 '25년 곡물 수확량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며, 주요 작물인 밀과 옥수수의 수확량이 각각 2,200만 톤 및 2,8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밝힘**
 - 이는 '24년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전쟁과 물류 제한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됨
- 🔍 **특히, 우크라이나 농업부는 수확기 이후의 수출 확대를 고려해 물류·저장 인프라와 선적 능력 확충에도 나설 계획임**
 - 다만, 흑해 항로를 통한 곡물 수출이 지속적으로 가능할지 여부가 향후 성패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 전망됨
 - '24년 말까지 우크라이나는 대체 항로(루마니아·폴란드 경유)를 활용한 수출 전략을 일부 성공적으로 운영한 바 있음
 - 이 같은 대체망을 보완하면서 전쟁 중에도 농업수출국으로서의 입지 회복을 시도 중임
- 🔍 **아울러 '26년 계획의 일환으로, 정부는 겨울밀(winter wheat) 재배 면적을 약 6.4%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는 토양 관리 및 수확 시기의 분산 효과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면서 생산량을 더욱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해석됨
 -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밀 수출국 중 하나로서, 겨울밀의 재배 확장은 수출 대응력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32) Reuters(2025.08.04.), <https://www.reuters.com/business/environment/ukraine-eyes-higher-2025-grain-harvest-plans-more-winter-wheat-2026-2025-08-04/> (2025.08.25. 검색)

3) 시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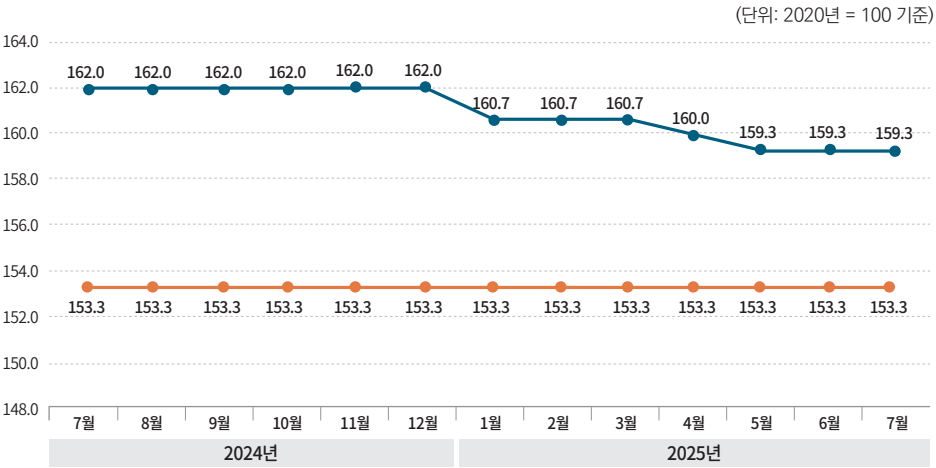


1 '25년 7월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전월과 동일

- ’25년 7월 포틀랜드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159.3p를 기록하였으며 고로 시멘트도 전월과 동일한 153.3p를 기록함
- 포틀랜드 시멘트는 전년 동월 대비 1.7% 감소했으며 고로 시멘트는 ’23년 12월 이후 변동 없이 보합세를 보임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 포틀랜드
● 고로슬래그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포틀랜드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0.7	160.7	160.7	160.0	159.3	159.3	159.3	0.0	-1.7
고로슬래그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0.0	0.0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5.08.25.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5.08.25.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25년 상반기 시멘트 출하량 33년 만에 최저...건설업 침체 여파, 후방산업 전반에 타격³³⁾

- ❖ '25년 상반기 국내 시멘트 내수 출하량이 1,888만 톤으로 집계되며, 1992년 이후 처음으로 2,000만 톤 아래로 하락함

 - 전년 동기 대비 17.4% 감소한 수치로, 외환위기·금융위기 당시보다도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됨
 - 같은 기간 전국 주택 착공 물량도 10만 3,147가구로 전년 대비 18.9% 감소함
- ❖ 시멘트 업계는 영업 실적 급락과 재고 부담 증가로 심각한 경영상 압박을 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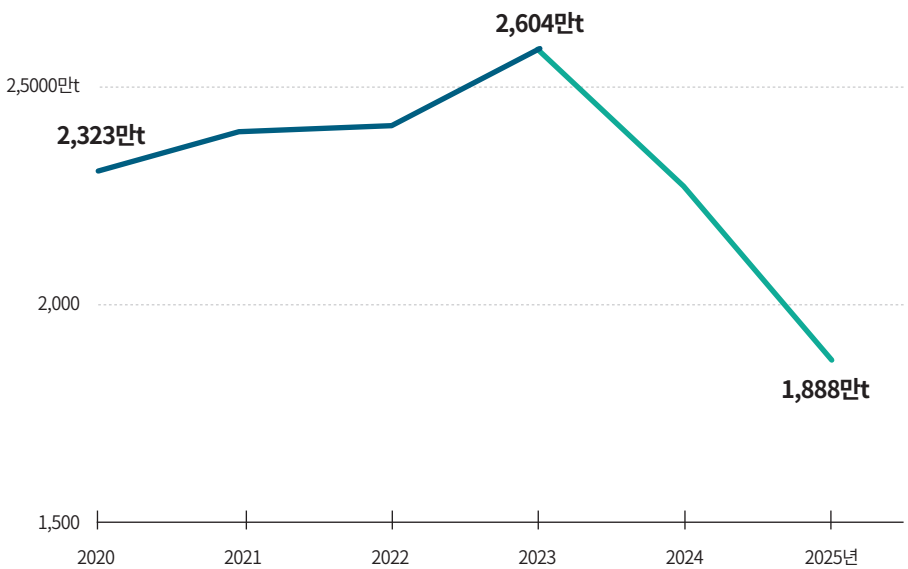
 - 쌍용C&E는 '24년 1분기 102억 원 흑자에서 '25년 1분기 180억 원 적자로 전환됨
 -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등 주요 업체들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0~90% 감소함
- ❖ 건설경기 침체의 여파는 인테리어·가구·중개업 등 후방 산업 전반으로 확산됨

 - 한샘은 '24년 1분기 이후 5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100억 원 이하에 머무름
 - LX하우시스는 '25년 2분기 영업이익이 1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2% 급감
 - 부동산 중개업계도 심각한 타격을 입어, '25년 6월 신규 개업 중개사 수는 699명으로 '15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 기록
 - 같은 달 폐업 또는 휴업 중개사는 1,039명으로, 신규 개업 수보다 약 50% 많음
- ❖ 건설업은 GDP의 약 15%를 차지하며, 생산액 10억 원당 10.8명의 고용을 유발하는 고고용 산업임

 - 제조업 평균 고용 유발 계수(6.5명) 대비 높은 수치로, 업황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내수 전체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민간 건설 부문을 무리하게 부양할 필요는 없으나, 후방 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 공공 투자는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함

33) 조선일보(2025.08.04.),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5/08/02/QU004KUBRVDQ3LTZOJ7Q7W550Y/\(2025.08.25. 검색\)](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5/08/02/QU004KUBRVDQ3LTZOJ7Q7W550Y/(2025.08.25. 검색))

최근 5년 상반기 시멘트
출하량



자료: 한국시멘트협회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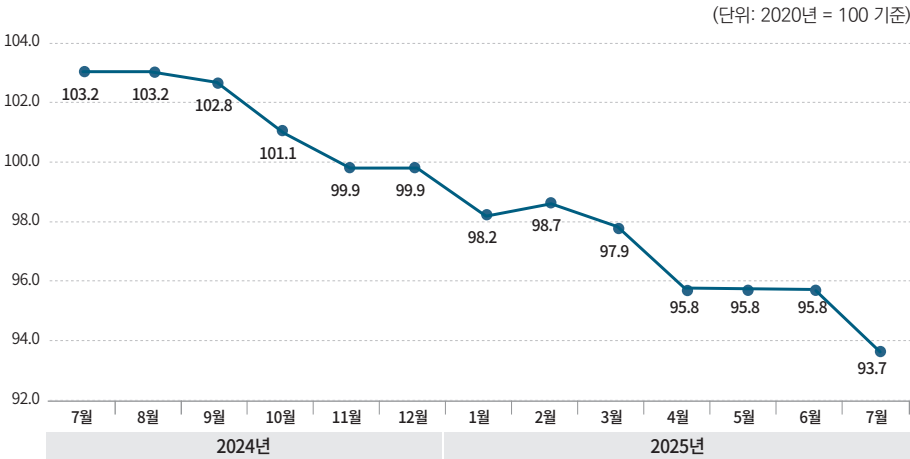
4) 모래



모래 생산자물가지수

1 '25년 7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 대비 2.2%, 전년 동월 대비 9.2% 감소한 93.7p 기록

모래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 '23년 10월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냄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래	103.2	103.2	102.8	101.1	99.9	99.9	98.2	98.7	97.9	95.8	95.8	95.8	93.7	-2.2	-9.2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2\(2025.08.25.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2(2025.08.25.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골재 유통이력관리제 법안 1년째 계류, 업계 이견 속 시행 차질 전망³⁴⁾

- ❖ 불량골재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골재 유통이력관리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이 넘도록 본격적인 입법 처리 없이 계류되고 있음

 - 해당 제도는 골재 채취지부터 레미콘 제조·납품 현장까지의 유통 경로를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불량골재 유통 차단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표로 함
 - 국토부는 '26년 이후 본격 시행을 목표로 관련 예산(연평균 1.3억 원)을 반영했으나, 입법 지연으로 전면 시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했으나, 골재 이력관리 의무화의 현실성, 수시 검사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 산지관리법상 산림골재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함
- ❖ 레미콘 및 중소 골재업계는 현장 적용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임

 - 소형 골재업체는 인력 부족과 수기전표 작성 관행, 레미콘업계는 시스템 등록 관리 부담 등을 주요 난점으로 제시함
 - 특히 다수 채취업체의 골재를 병행 사용하는 중소 레미콘사는 제품별 구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반면, 대형 골재업계는 제도 도입에 긍정적이며 불량골재 유통 방지 및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반으로 업계 신뢰도 회복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임
- ❖ 국토부는 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 중이며, 향후 보완 설명을 거쳐 법안 심의 재개를 추진할 예정임

 - 다만 법 통과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고려하면, 국토부가 목표로 한 '26년 전면 의무화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34) 대한경제(2025.08.18.),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508180106274250934(2025.08.25. 검색)

골재채취법 개정안 주요
내용

골재채취법
개정안 주요 내용

쟁점	갈등 요인
골재품질 수시검사 확대	비용 부담 주체
골재 이력관리 의무화	이해관계자 동의
산림골재 포함	산지관리법 소관



발파암 선별파쇄업

출처: 대한경제(2025.08.18.),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508180106274250934(2025.08.25.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5) 석탄



석탄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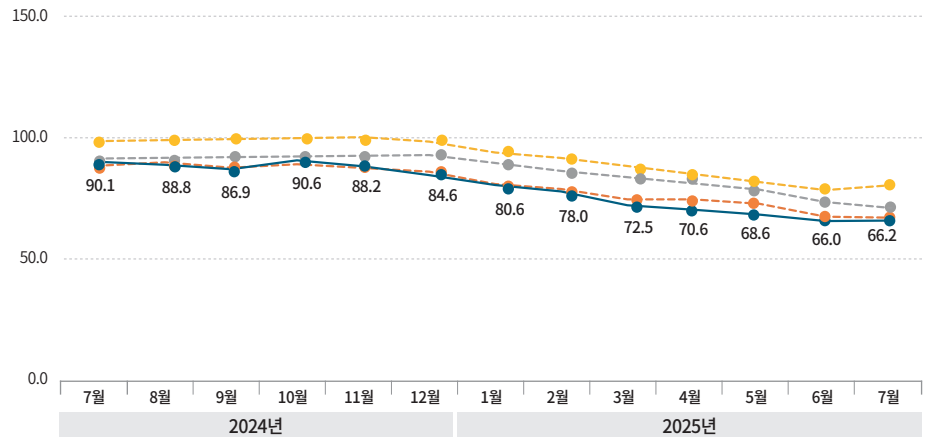
● 뉴캐슬
● 리차드베이
● 칼리만탄
● 중국남부

1 '25년 7월 유연탄 가격(뉴캐슬산) 전월 대비 소폭 증가

● '25년 7월 유연탄 가격(뉴캐슬, 5,000kcal/kg, NAR, FOB 기준)은 톤당 66.2달러로 전월 대비 0.4% 소폭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6.5% 감소함

- 8개월 연속 전월 대비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7월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감소세 기록
- 지역별로 살펴보면 리차드베이산(-0.6%), 칼리만탄산(-3.1%)은 전월 대비 감소세 기록, 중국남부산(+2.5%)은 증가세를 기록함

(단위: 달러/톤)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뉴캐슬	90.1	88.8	86.9	90.6	88.2	84.6	80.6	78.0	72.5	70.6	68.6	66.0	66.2	0.4	-26.5
리차드베이	88.3	89.8	87.6	89.1	88.3	85.9	81.1	79.0	74.8	74.8	73.0	67.8	67.4	-0.6	-23.7
칼리만탄	91.4	91.7	92.0	93.5	93.6	92.9	89.6	86.3	84.5	81.6	78.8	73.8	71.5	-3.1	-21.8
중국남부	98.5	99.2	99.9	100.8	100.2	98.5	94.0	91.9	87.6	84.0	81.5	78.8	80.8	2.5	-18.0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5.08.21\)](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5.08.21))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국제에너지기구(IEA), '25년 세계 석탄 수요 사상 최고치 수준 지속 전망³⁵⁾

- IEA의 'Coal Mid-Year Update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5년 전 세계 석탄 수요는 '24년 사상 최고치인 88억 톤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25년 상반기 중국과 인도에서 전력 소비 증가세 둔화와 재생 에너지 발전 확대의 영향으로 석탄 수요가 감소함
 - 반면 미국에서는 전력 수요의 견조한 증가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발전용 석탄 소비가 약 10% 증가함
 - 유럽연합의 경우 산업용 석탄 소비는 줄었으나, 발전용 수요가 증가하며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나타냄
 - IEA는 이러한 단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세계 석탄 수요의 구조적 요인은 대체로 변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기존 전망과 마찬가지로 '25년에도 전 세계 석탄 수요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공급량 역시 '25년 중국과 인도의 에너지 안보 확보 목적에 따른 석탄 생산량 확대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며, '26년에는 높은 재고와 낮은 가격으로 공급이 위축되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석탄 교역량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나, '25년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5) IEA(2025.07.24.), <https://www.iea.org/news/global-coal-demand-to-remain-on-a-plateau-in-2025-and-2026>(2025.08.21.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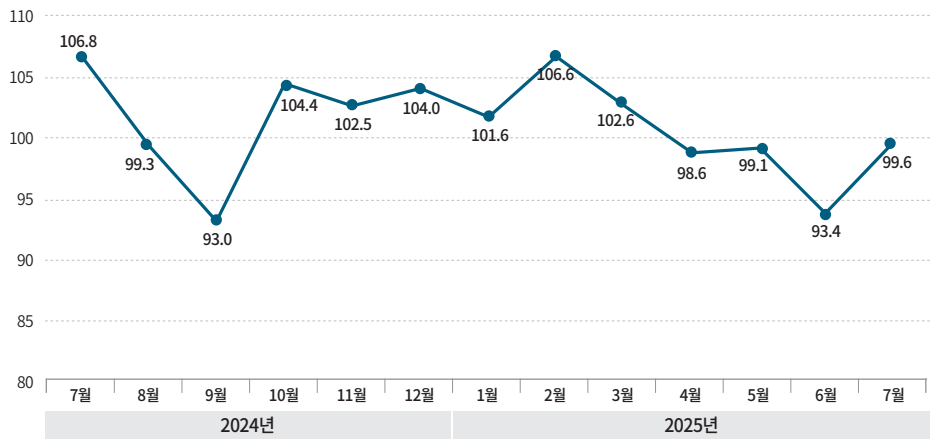
6) 철광석



철광석 가격 추이

1 '25년 7월 철광석 가격 전월 대비 6.6% 증가, 전년 동월 대비 6.7% 감소

- '25년 7월 철광석 가격(Fe 62%, 중국 칭다오항 도착기준)은 톤당 99.6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함
- 다만, 전월 기준으로는 6.6% 증가세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 및 철강 수요 회복 전망에 따른 것으로 나타남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철광석	106.8	99.3	93.0	104.4	102.5	104.0	101.6	106.6	102.6	98.6	99.1	93.4	99.6	6.6	-6.7

주: 62% 분광 중국 칭다오항 도착 기준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5.08.21. 검색\)](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5.08.21.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중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철광석 가격 상승³⁶⁾

-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 및 세계 최대 수력발전댐 착공 등의 영향으로 철광석 가격은 올해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함
 - 7월 넷째 주 철광석 가격(Fe 62%, 북중국 CFR 현물 기준)은 톤 당 103.78달러로 10주 만에 100달러 선을 상회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교통망 및 도시 인프라 등 국가 전략 프로젝트에 총 8천억 위안을 배정하면서 철강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림
 - 또한, 지난 7월 19일 티베트자치구 동부 알룽 창포강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용 댐 건설을 시작하면서, 철강 수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철광석 가격 상승을 끌어올림
-  한편, 7월에 발표된 긍정적인 거시 경제 지표와 전망도 시장의 심리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25년 2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하면서 연간 경제 성장을 목표치인 5% 안팎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6) 철강금속신문(2025.07.29.), <https://p.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4593>(2025.08.21.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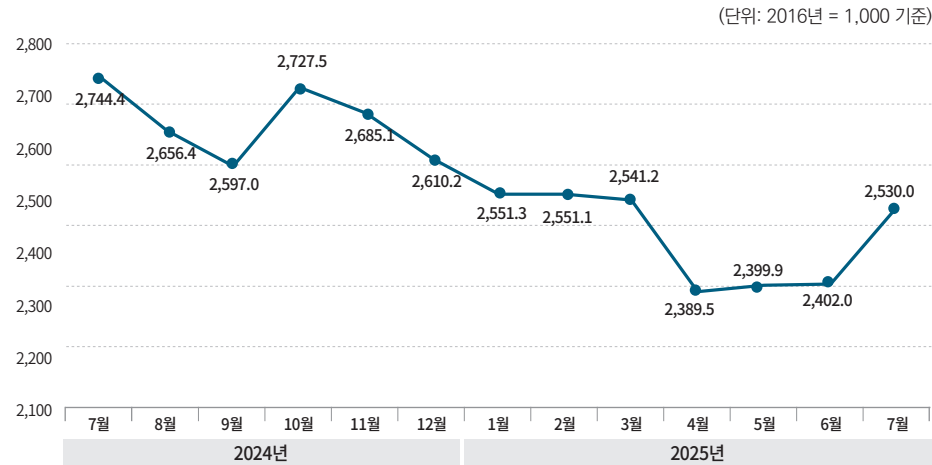
7) 기타광석



광물종합지수 추이

1 6월 광물종합지수는 2,530.0p로 전월 대비 증가

’25년 6월 광물종합지수는 전월 대비 5.3% 증가한 2,530.0p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월(2,744.4p) 대비해서는 7.8% 감소함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광물종합지수	2,744.4	2,656.4	2,597.0	2,727.5	2,685.1	2,610.2	2,551.3	2,551.1	2,541.2	2,389.5	2,399.9	2,402.0	2,530.0	5.3	-7.8

주: 광물종합지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전반적인 자원시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수입금액 20위권 이내 광종 중 산업전략적 중요광물(동, 니켈, 아연, 리튬 등) 15개를 선정하여 자체 개발한 종합지수로서, 기준시점은 2016년 1월을 1,000으로 함. 매일 발표하며 월별 실적은 일별 데이터의 평균값을 산출함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MnrlIndc/IndxMin\(2025.08.25](https://www.komis.or.kr/Komis/MnrlIndc/IndxMin(2025.08.25)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세계 전략 광물 30종 특정국에 생산 편중, 공급 불안정 대비 필요³⁷⁾

-  한국무역협회는 『글로벌 전략 광물의 생산 편중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세계 전략 광물 76개 중 30개가 특정국에 편중되어 생산되고 있으며, 공급망 불안정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특히 중국은 전체 30개 편중 광물 중 22개를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수출 통제 강화 움직임으로 글로벌 공급망 충격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전략 광물은 반도체, 배터리, 항공우주 등 안보 및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각국이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대표 사례로는 중국의 갈륨(세계 생산의 98.7%), 브라질의 니오븀(90.9%) 등이 있으며, 이 외 콩고민주공화국(코발트), 인도네시아(니켈), 남아공(플래티넘) 등도 특정 광물에 있어 생산 집중도가 높음
-  생산 편중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가 실제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큼
 - '25년 2월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수출 중단 조치로 수산화코발트 가격이 84% 급등함
 - 4월에는 중국이 희토류 7종 수출을 통제하면서, 디스프로슘 가격이 3배 이상 폭등함
 - 한국은 생산 편중 광물 30종 중 15종에 대해 자국 내 생산 가능성이 있으나, 나머지 15종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특히 나이오븀, 마그네슘, 흑연, 희토류는 수입 의존도가 80%에 달하며, 공급망 교란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임
-  한국무역협회는 공급망 리스크 완화를 위해 핵심 광물의 비축 물량 확대, 수익성 부족 등으로 중단된 국내 생산 광물에 대한 재생산 유도 정책, 수입 다변화와 공급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를 제안함
 - 미국 사례와 같이 희토류 등 핵심 자원에 대해 국가 차원의 가격보장제도 및 생산 유인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함
 - 또한, 첨단산업 안보와 직결된 전략 광물의 대외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낮추는 정책적 노력이 한국에도 요구된다고 강조함

37) 연합뉴스(2025.08.15.), <https://www.yna.co.kr/view/AKR20250814168800003>(2025.08.25. 검색)

생산평균도 상위 광물
리스트

연번	광물명	1위 생산국	생산비중	연번	광물명	1위 생산국	생산비중
1	갈륨	중국	98.7	16	희토류(경희토류, 중희토류 등)	중국	69.2
2	마그네슘 금속	중국	95.0	17	티타늄 및 이산화티타늄 (스펀지 메탈/안료)	중국	68.8 /56.1
3	니오븀	브라질	90.9	18	요오드	칠레	66.7
4	실리콘 (실리콘 메탈/ 페로실리콘)	중국	84.8 /58.6	19	철 및 강철 (선철/조강)	중국	64.6 /52.1
5	수은	중국	83.3	20	형석	중국	62.1
6	텅스텐	중국	82.7	21	연마제	중국	61.1
7	비스무트	중국	81.3	22	안티모니	중국	60.0
8	흑연	중국	79.4	23	알루미늄	중국	59.7
9	텔루륨	중국	76.5	24	니켈	인도네시아	59.5
10	코발트	DR 콩고	75.9	25	보크사이트(알루미나)	중국	59.2
11	석회	중국	73.8	26	마그네슘 화합물	중국	59.1
12	월라스토나이트	중국	72.7	27	점토	미국	55.8
13	백금족	남아공	70.6	28	베릴륨	미국	50.0
14	인듐	중국	70.4	29	석면	러시아	50.0
15	바나듐	중국	70.0	30	시멘트(클링커)	중국	50.0

주 : 2024년 기준으로, 글로벌 생산 총량 집계 불가 광물은 제외
자료: USGS(2025)

출처: 대한경제(2025.08.18.),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508180106274250934(2025.08.25.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8) 목재



1 '25년 1~6월 원목 수입량은 76만 8천㎥로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

- 국내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제재목, 성형목재, 합판, 파티클보드의 수입이 감소한 반면, 목재펠릿 수입량은 증가함
 - 제재목 수입량은 72만㎥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하였으며, 성형목재 수입량은 36,541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 감소함
 - 합판(-9.8%), 파티클보드(-9.9%), 섬유판(-34.4%)의 수입량도 각각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목재펠릿 수입량은 199만 3천 톤으로 5.5% 증가함
-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적인 건설경기 부진으로 목재 수요감소로 가격이 하락 또는 보합세를 유지함
 - 미국의 관세 정책과 국내의 환율하락으로 가격조정이 불가피함
 - 태국산PB의 반덤핑관세로 중국산으로 수입선을 변경함

국내 목재 품목별
수입현황

품목(단위)	2025년 누적 (1-6월)	2024년 누적 (1-6월)	증감률 (%)
원목(천㎥)	768	811	-5.3%
제재목(천㎥)	720	727	-1.0%
성형목재(톤)	36,541	40,160	-9.0%
합판(천㎥)	645	715	-9.8%
파티클보드(천㎥)	672	746	-9.9%
섬유판(천㎥)	107	163	-34.4%
목재펠릿(천 톤)	1,993	1,889	5.5%

자료: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2025.07.23.), [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sessionId=K05CuprU-LO6Crp02ijRhxZPhe0naZ70x8JRj4BDF13eScF1SIYVV78P19i3210xa.frswas02_servlet_engine5?nttid=3208841&bbsI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AR01_04_02_03&component=\(2025.08.24. 검색\)](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sessionId=K05CuprU-LO6Crp02ijRhxZPhe0naZ70x8JRj4BDF13eScF1SIYVV78P19i3210xa.frswas02_servlet_engine5?nttid=3208841&bbsI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AR01_04_02_03&component=(2025.08.24. 검색))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2 REC 고시 7개월째 지연, 바이오매스 업계 상생 협력으로 돌파구 모색³⁸⁾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가 한국남동발전과 상생 협력 업무협약(MOU)을 추진하며 7개월째 지연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운영지침 개정에 탄력을 불어하고자 함
 - 국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사용을 활성화하고 수입산 바이오매스의 무분별한 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임
 - 산업부는 바이오매스 연료업계에 ‘협회가 자체적으로 공공 발전사와 조율하면 고시를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짐
-  '23년 원목 목재펠릿 총 340만 톤 생산 중 98%가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되어 총 7,000억 원이 전기요금으로 지출됨
 - 정부는 지난해 12월 ‘바이오매스 연료·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1월 REC 제도 운영지침을 행정 예고했으나 발전업계의 거센 반발로 고시 제정이 미뤄짐
 - 올해 7월까지 우드펠릿 수입량이 약 4,7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8% 급증하며 국내 임업계 부담이 가중됨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장은 정부가 고시 제정을 미루며 현실 불가능한 상생 협약만을 요구해왔으며 국내 연료 제조업계의 폐업과 누적 적자 문제를 지적함
 - 정부를 믿고 수천억 원을 투자한 국내 업체들이 폐업, 부도, 가동 중단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함
 - 산업부는 9월 규제심의위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힘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38) 머니투데이방송(2025.08.22.),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5082212295275834>(2025.08.24.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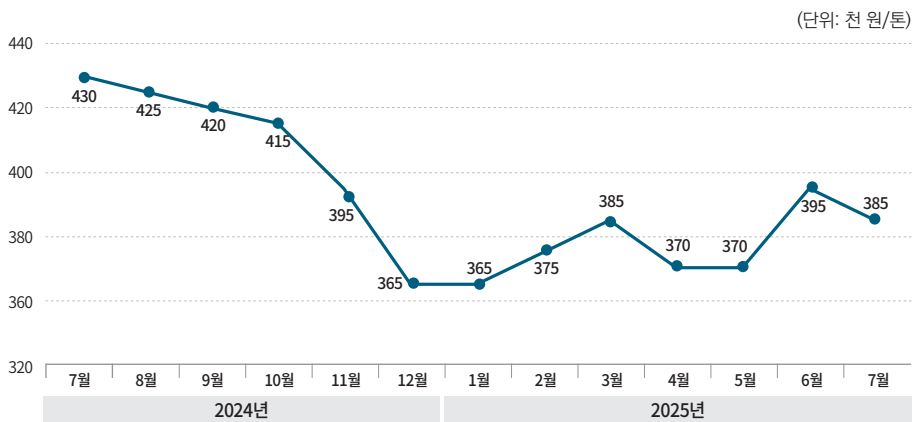
9) 고철



① '25년 7월, 고철(생철) 가격 전월 대비 2.53% 하락

- 📌 '25년 7월 기준 국내 고철(생철) 평균 가격은 385천 원/톤으로, 전월 대비 1만 원 하락(-2.53%)함
 - 지난 6월에 기록한 큰 폭의 상승세 이후 다시 하락 전환된 것으로 5월(370천 원) → 6월(395천 원) → 7월(385천 원) 순으로 등락을 반복하며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음
- 📌 이번 하락은 '25년 상반기 동안 이어진 국제 철스크랩 수급 불안과 환율 변동, 제강사들의 고철 구매 속도 조절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됨
 - '25년 전체 흐름을 살펴보면, 1~3월에는 완만한 상승세, 5월에는 보합세를 유지하다 6월 급등, 그리고 7월 다시 하락하는 등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임
 - 전년 동기 대비에서는 '24년 7월(430천 원) 대비 약 45,000원(-10.5%) 하락한 수준으로, '2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전반적인 가격 하락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함

고철(생철) 연간 가격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5.08.22.), <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5.08.25.검색>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2 '25년 8월, 고철 구매 가격 인상 동향³⁹⁾⁴⁰⁾

- 최근 국내 주요 제강사들이 철스크랩(고철) 구매 가격을 일제히 인상하며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주고 있음
 - 대표적으로 한국철강은 8월 12일 기준으로 전 등급 고철 가격을 톤당 1만 원 인상한다고 발표했으며, 세아베스틸과 한국특강도 8월 11일 동일한 인상 폭을 단행함
 - 이에 대해 각 사는 계절적 성수기와 원자재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가격 조정을 실시했다고 발표함
 - 한편, 포스코는 8월 8일 광양 및 포항 제철소의 고철 구매 가격을 전 등급에 걸쳐 톤당 1만 원 인상함과 동시에, 광양 제철소는 8월 9일 고철 입고를 휴무하기로 결정함
 - 이는 일시적인 입고 조절을 통해 물류 운영 최적화와 가격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조치로 해석됨
- 최근 일련의 가격 인상은 단순한 가격조정에 그치지 않고, 하반기 국내 철강산업 전반의 수급 전망에 대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주요 제강사들이 가격 경쟁보다는 고철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고철 시황의 강보합세 지속가능성도 예상됨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39) 페로타임즈(2025.08.11.), <https://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26>(2025.08.25. 검색)

40) 페로타임즈(2025.08.12.), <https://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43>(2025.08.25. 검색)

10) 철재



선철, 슬래브 및 빌렛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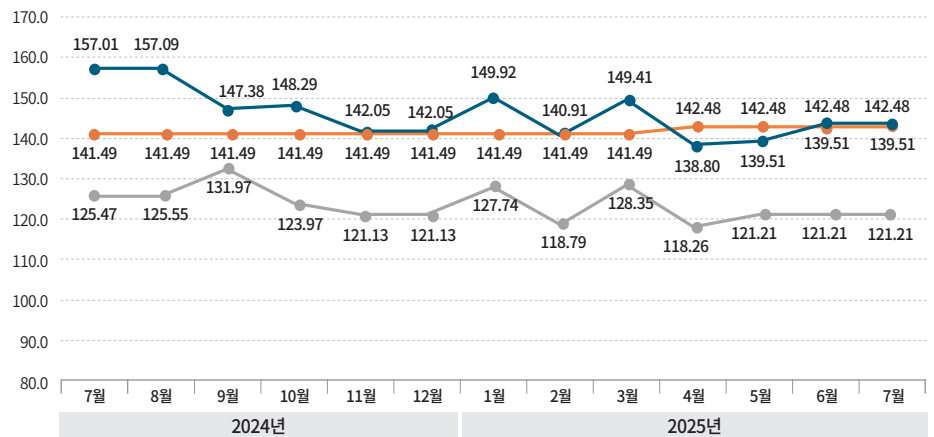
— 선철
— 슬래브
— 빌렛

1 '25년 7월 생산자물가지수, 선철, 슬래브, 빌렛 모두 전월과 같은 수준 유지

7월 선철, 슬래브, 빌렛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과 같은 142.48p, 139.51p, 121.21p를 기록함

- 철광석을 고로에 투입하여 제선 공정 후 생산된 선철의 생산자물가지수는 큰 변동 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 4월 소폭 올라 전년 동월 대비 0.7% 상승함
- 전로 및 전기로를 통해 생산되는 반제품인 조강의 대표 품목 중 하나인 슬래브와 빌렛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각각 8.4%p, 3.4%p 하락함
- 철광석은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입되고 있어 선철의 생산자물가지수는 큰 변동이 없으나, 슬래브와 빌렛은 시장의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하락한 모습을 보임

(단위: 만 원/톤)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선철	141.49	141.49	141.49	141.49	141.49	141.49	141.49	141.49	141.49	142.48	142.48	142.48	142.48	0.0	0.7
슬래브	157.01	157.09	147.38	148.29	142.05	142.05	149.92	140.91	149.41	138.80	139.51	143.83	143.83	0.0	-8.4
빌렛	125.47	125.55	131.97	123.97	121.13	121.13	127.74	118.79	128.35	118.26	121.21	121.20	121.20	0.0	-3.4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5.08.21.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5.08.21.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철강업계, 조선업계와 후판 가격 협상 긴장 고조⁴¹⁾

❖ 철강업계는 후판 가격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음

- 조선소에서 사용되는 후판은 두께 6mm 이상 두꺼운 철판이며, 선박 건조 시 원가의 20%를 차지하고 철강 매출의 10% 이상 비중을 차지함
- 통상 반기별로 진행하던 후판 가격 협상은 올해 시장 변동에 따른 기민한 대응을 위해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음
- '24년 톤당 70만 원 이하로 떨어진 후판 가격은 '25년 들어 80만 원 수준으로 회복 하였으나, 철강업계는 '23년 수준인 톤당 90~100만 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가격 정상화'라는 입장임
- '24년 중국산 후판이 대량 유입되면서 가격이 하락했으며, 올해 정부가 중국산 저가 후판에 대해 최대 38.02%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가격이 반등함
- 관세 조치와 함께 '25년 하반기 중국의 철강 감산 및 건설경기 부양 정책으로 후판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 철강업계의 협상력이 강화됨

❖ 반면, 조선업계는 원가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상에 반대하고 있음

- 후판 가격 인상은 선박 건조 원가 상승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조선업계는 후판 가격을 톤당 8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21년부터 조선업 초호황기인 '슈퍼 사이클'에 본격 진입했으나,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최근 글로벌 선박 발주량이 감소하여 '피크아웃' 우려가 확산하고 있음
- 한국 조선업 수주도 전년 대비 37% 줄며 슈퍼 사이클 이후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어 조선업계는 원가 절감에 집중하고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1) 아이티조선(2025.08.15.),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45907>(2025.08.21. 검색)

3 철강업계, 관세·중대 재해·전기료 인상 등 삼중고⁴²⁾

-  미국이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상향·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대미 수출 타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미국은 '25년 3월 외국인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6월부터는 50%로 추가 상향함
 - 대미 철강 수출 협의에 따른 완화 기대감도 있었으나, 미국은 우리나라 철강 부문에 대해 50% 관세 유지를 결정했으며, 열연강판에 부과하는 상계관세도 1.5~2.2% 소폭 인상함
 - '24년 전체 수출량 중 미국이 13.1%를 차지하였으며, 관세 부담이 장기화함에 따라 철강업계 수출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해짐
-  「중대재해처벌법」 및 「노란봉투법」 논의 확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 경영환경 악화 요인이 누적되고 있음
 - 포스코이앤씨 사고 여파로 중대재해 논의가 확대되고 있어, 건설경기 위축과 맞물려 철강 수요 감소가 우려되고 있음
 -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조하며 산업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성을 언급하면서 따라 원가상승 부담이 커짐
 - 통상 업계에서는 전기요금이 1kWh당 1원 인상되면 연간 원가 부담은 200억 원 증가한다고 추산하고 있어 일부 기업들은 1,000억 원 이상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2) 뉴스웨이(2025.08.15.), <https://www.newsway.co.kr/news/view?ud=2025081516014190982>(2025.08.21. 검색)

4 중국의 철강 생산량 감산 조치, 국내 철강업계에 긍정적 영향 기대⁴³⁾

-  중국 허베이성 탕산시시는 철강 생산 제한조치 세부사항을 발표하면서 강력한 감산 조치를 시행함
 - 8월 16일부터 10일간 탕산시 소재 재압연사 35곳은 정부 지시 시 즉각 생산을 중단해야 하며,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는 의무적으로 생산을 전면 중단해야 함
 - 탕산시는 지난 6월에도 소결기 가동 30% 감축을 지시했으나 효과는 미미했으며, 7월 중국 철강 수출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한 984만 톤 기록함
 - 중국의 중앙정치국은 ‘무질서한 경쟁 관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 최대 철강 생산지인 탕산시에서 철강에 대한 실질적인 공급 조절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번 조치는 이전 대비 강도가 높아, 공급 과잉 완화와 한국 철강업계의 시황 개선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음
 - 중국의 자국산 저가 철강 밀어내기 수출로 국내 업계는 장기간 어려움을 겪었으며, 중국 철강 기업들도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1.97%에 그침
 - 감산 영향으로 중국 주요 철강사(바오산·안강·본계강철 등)는 9월 제품가를 톤당 200~300위안 인상하는 등, 중국 내 시세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음
 - 다만, 국내·중국 건설 경기 회복이 병행되어야 실질적 회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이 같은 감산은 일시적 조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함
 - 국내 철강 가격은 1~2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데, 감산 지속 여부에 따라 수익 개선 효과가 좌우될 전망이다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3) 뉴시스(2025.08.14.),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14_0003290293(2025.08.21. 검색)

11) 자동차



1 '25년 6월 자동차산업 동향, 개소세 연장 효과로 내수 증가, 전기차 수출 17개월 만에 반등⁴⁴⁾

- 6월 내수는 전월 대비 2.8% 증가,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한 145,842대를 기록함
 - 전년도 부진에 의한 기저효과와 당초 6.30. 일몰 예정이었던 개별소비세 감면 정책 종료 전 출고 수요 증가(기재부 6.16. 연말까지 연장 발표)가 영향을 미침
 -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 동월 대비 36.2% 증가한 72,714대로 전체 내수의 49.9%를 차지함. 전기차는 가격 경쟁 프로모션과 하반기 보조금 소진 우려로 구매가 앞당겨지면서 국산 43.2%, 수입 26% 증가함
- 6월 수출은 전월 대비 0.9%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1% 감소한 244,318대를 기록함
 - 전기차 생산 현지화, 관세 부과, 전년도 호실적 기저효과로 현대·기아·한국지엠은 감소했으나 유럽 집중 공략한 KG모빌리티는 14.5% 증가함
 - 친환경차 수출은 전기차가 '24년 2월 이후 처음 증가 전환(+21.6%)하며 하이브리드(+28.6%) 증가와 함께 전년 동월 대비 23.2% 증가한 75,745대를 기록하여 전체 자동차 수출의 31%를 차지함
- 6월 생산은 전월 대비 1.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0.1% 감소한 353,230대를 기록함
 - 수출 물량 감소로 생산이 소폭 감소했으나 개별소비세 감면과 전기차 보급 확대에 힘입은 내수 증가로 감소 폭이 제한적이었음
 - 현대는 0.5% 감소, 기아는 0.9% 증가했으며, 한국지엠은 3.4% 감소, KG모빌리티는 47.6%, 르노코리아는 32.6% 감소함

단위 : 대, 백만 \$, %

'25년 6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구분	2024년			2025년			증감률		
	연간	6월	1~6월	5월	6월	1~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1~6월
내수	1,626,245	137,891	798,542	141,865	145,842	826,628	2.8	5.8	3.5
(국산차)	1,344,432	109,884	667,578	112,200	116,724	679,775	4.0	6.2	1.8
(수입차)	281,813	28,007	130,964	29,665	29,118	146,853	-1.8	4.0	12.1
OEM 수입	20,318	2,811	6,124	1,506	1,355	9,056	-10.0	-51.8	47.9
수출	2,782,612	252,244	1,467,080	246,423	244,318	1,411,502	-0.9	-3.1	-3.8
(완성차 수출액)	70,786	6,200	37,001	6,198	6,343	36,359	2.3	2.3	-1.7
(부품 수출액)	22,533	1,755	11,311	1,663	1,799	10,774	8.2	2.5	-4.8
생산	4,128,242	353,567	2,145,282	358,969	353,230	2,111,101	-1.6	-0.1	-1.6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2025.07.30.),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Produce&board_id=926&menunum=0003&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5.08.24. 검색)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44)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2025.07.30.),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54&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5.08.24. 검색)

2 자동차 업계, 대·중소 상생 협력으로 미 관세 대응, 현대차·기아 400억 원 출연해 6,300억 원 지원⁴⁵⁾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세 대응 현장 릴레이 간담회 일환으로 자동차 부품업체 디와이오토를 방문하여 수출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협약식에 참석함**

 - 현대차·기아-하나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간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자동차 분야 수출공급망 강화를 위한 대·중소 상생 및 민간금융 협력 체계가 구축됨
 - 현대차·기아 및 하나은행이 총 4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출연하고 무보가 이를 기반으로 총 6,300억 원 규모 우대금융을 자동차 협력사에 지원하기로 함
-  **신설되는 ‘자동차 협력사 우대금융 상품(수출공급망강화보증)’을 통해 협력사들이 완성차업체 납품용 제작자금을 저금리·고한도로 확보할 수 있게 됨**

 - 현대차·기아 협력사들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최대 2%p까지 인하된 금리로 제작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무보로부터 보증 한도 상향, 보증기간 확대(1년→3년), 보증료를 인하(1%→0.65%) 등의 우대를 받음
 - 무보 납부 보증료를 하나은행이 지원함으로써 협력사의 비용 부담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옴
-  **디와이오토가 ‘수출공급망강화보증 1호 보증서’를 받아 200억 원 규모 자금을 확보하여 원활한 원자재 확보와 수주 확대에 나설 계획임**

 - 임연찬 디와이오토 대표는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안정적인 부품 납품과 함께 생산량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시설투자가 가능해졌다고 밝힘
 - 김정관 장관은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수출 애로 해소, 대체시장 진출, 세제·자금 지원 등 후속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함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45)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5.08.18.),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49a5a8c/170816/view?mno=&pageIndex=1&rowPageC=0&displayAuthor=&searchCategory=0&schClear=on&startDtD=&endDtD=&searchCondition=1&searchKeyword=%EC%9E%90%EB%8F%99%EC%B0%A8#\(2025.08.24. 검색\)](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49a5a8c/170816/view?mno=&pageIndex=1&rowPageC=0&displayAuthor=&searchCategory=0&schClear=on&startDtD=&endDtD=&searchCondition=1&searchKeyword=%EC%9E%90%EB%8F%99%EC%B0%A8#(2025.08.24. 검색))

3 현대차그룹, 미국 전기차 수출 사실상 중단, 7월 164대로 전년 동월 대비 97% 급감⁴⁶⁾

- ❖ '25년 7월 한국의 대미 전기차 수출이 164대에 그쳐 전년 동월(6,209대) 대비 97.4% 급감하며 사실상 수출 중단 상태에 진입함

 - '25년 1~7월 누적 대미 전기차 수출량은 8,443대로 전년 동기(72,579대) 대비 88.4% 감소하여 '수출 실종'에 가까운 상황임
 - 이는 미국 내 전기차 구매보조제도 축소와 현대차그룹의 현지생산 대체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 현대차그룹은 올해 3월 조지아주에 완공한 전기차 전용 생산기지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9를 100% 미국 내 공급용으로 생산하고 있음

 - 내년에는 기아 모델과 제네시스 차량으로 생산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국내 전기차 생산은 축소세를 보이고 있음
 - 현대차는 8월 14~20일 울산 1공장 12라인(아이오닉5·코나EV 생산) 가동을 중단했으며, 이는 올해 들어 6번째 휴업임
- ❖ 현대차그룹은 수출 다변화 전략을 통해 유럽 등으로 전기차 수출처를 확대하고 있음

 - '25년 7월 대EU 자동차 수출액은 7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2.7% 증가했고, 기타 유럽은 6억 3,000만 달러로 78.7% 증가함
 - 7월 전기차 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하여 6월부터 반등세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남
- ❖ 현대차그룹의 미국 시장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이 7월 기준 151만 5,145대를 기록하여 13년 만에 150만 대를 돌파함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46) 서울경제(2025.08.24.), <https://www.sedaily.com/NewsView/2GWR19883C>(2025.08.24.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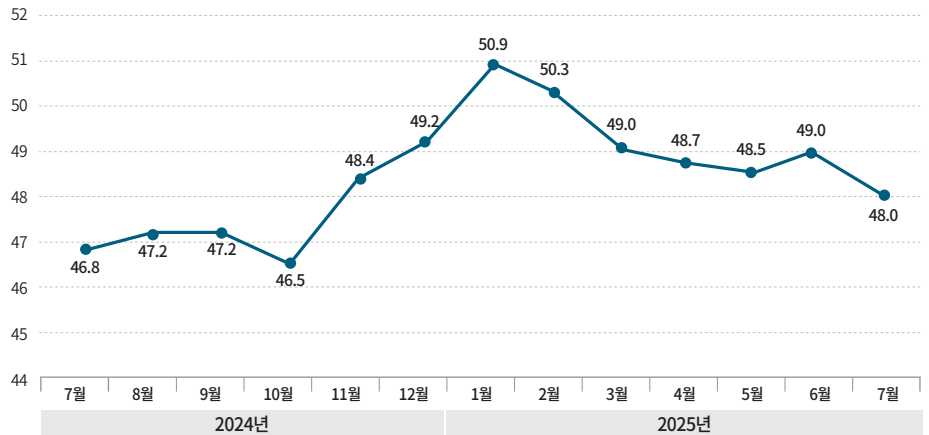
12) 잡화



1 미국 공급자관리협회, '25년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는 48.0으로 5개월 연속 위축⁴⁷⁾

- 미국의 제조업 경기 지표가 시장 기대를 하회하며, 제조업 부문의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을 재확인함
 -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0으로, 전월(49.0) 대비 하락했으며, 시장 예상치였던 49.5에도 미치지 못함
 - 이는 '24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5개월 연속 기준선(50)을 하회한 것으로 제조업 부문이 수축 국면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줌
 -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는 납품지수(Supplier Deliveries Index)가 45.7로 하락했고, 고용지수(Employment Index)도 43.4로 급락한 점이 지목됨
 - 특히 고용 부문은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친 항목 중 하나로 인식됨
- 전반적으로 7월 PMI는 미국 제조업 부문이 여전히 구조적 약세를 겪고 있음을 시사하며, 고용과 공급망 측면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을 보여줌

미국 PMI (구매관리자지수) 추이



자료: Trading Economics(2025.08.01.), KMI 작성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47) Trading Economics(2025.08.01.),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2025.08.25. 검색\)](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2025.08.25. 검색))

13) 유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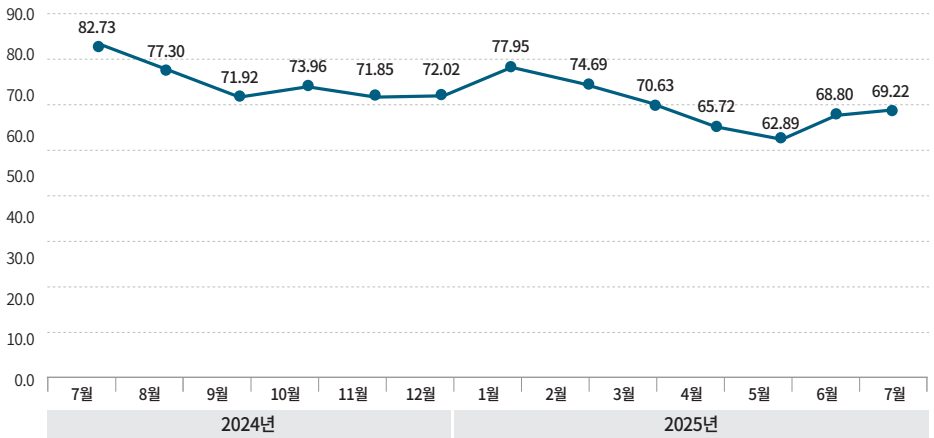


국제 원유 가격 추이

1 '25년 7월 국제유가, 전월 대비 Dubai 상승, Brent 및 WTI 소폭 하락

- '25년 7월 세계 3대 유종의 배럴당 평균 유가는 전월 대비 0.6% 상승한 69.22달러를 기록함
 - 미국이 강력한 관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면서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석유 수요 둔화를 전망했으며, 세계 경기 위축 우려가 높아지면서 유가가 지속 하락해옴
 - 올해 1월부터 유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5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4.2% 하락하여 저점을 찍었으나 6월 반등함
 - 다만, 국제사회의 갈등과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유가는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단위: 달러/배럴)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Dubai	83.83	77.60	73.52	74.94	72.61	73.23	80.41	77.92	72.49	67.74	63.73	69.26	70.87	2.3	-15.5
Brent	83.88	78.88	72.87	75.38	73.40	73.13	78.35	74.95	71.47	66.46	64.01	69.80	69.55	-0.4	-17.1
WTI	80.48	75.43	69.37	71.56	69.54	69.70	75.10	71.21	67.94	62.96	60.94	67.33	67.24	-0.1	-16.5
평균	82.73	77.30	71.92	73.96	71.85	72.02	77.95	74.69	70.63	65.72	62.89	68.80	69.22	0.6	-16.3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국제석유가격, [https://www.petronet.co.kr/v4/sub.jsp\(2025.08.21. 검색\)](https://www.petronet.co.kr/v4/sub.jsp(2025.08.21.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보령 LNG터미널 인수전, 10여 업체 참여⁴⁸⁾⁴⁹⁾

-  보령 LNG터미널 인수전은 10여 업체가 참여하게 되었으며, IMM인베스트먼트와 외국계 자본 간 경쟁 구도를 이루게 됨
 - 예비입찰에 IMM인베스트먼트·스톤브릿지·맥쿼리·아이스퀘어드·CDPQ 등 10여 곳 참여하는 등 흥행에 성공함
 - SK이노베이션은 보령 LNG터미널과 최소 20년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LNG를 공급받을 예정이므로 매출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예상 매각가도 기존 5,000억 원 수준에서 6,000억 원 안팎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 다만, 매각 후에도 GS에너지가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어, 공동으로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 IMM인베스트먼트는 GS와의 협력 이력이 있어 우위에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글로벌 운용사들도 자금력을 앞세워 금리를 낮게 조달할 수 있어 최종 성패는 조달 금리와 투자 수익성에 달릴 전망이다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8) 조선비즈(2025.08.11.), [https://biz.chosun.com/stock/market_trend/2025/08/11/6F3FTOAQANB4DEEZEQUH3XISNI/?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2025.08.21. 검색\)](https://biz.chosun.com/stock/market_trend/2025/08/11/6F3FTOAQANB4DEEZEQUH3XISNI/?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2025.08.21. 검색))

49) 매일경제(2025.08.07.), [https://www.mk.co.kr/news/stock/11387777\(2025.08.21. 검색\)](https://www.mk.co.kr/news/stock/11387777(2025.08.21. 검색))

3 아시아 천연가스 수요, '30년까지 연평균 5% 증가 전망⁵⁰⁾

아시아가 '30년까지 세계 천연가스 수요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보임

- Morgan Stanley Research에 따르면, 아시아 천연가스 수요는 연평균 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럽 1%와 미국 3%를 크게 상회 할 것으로 보임
- 아시아가 세계 AI 데이터센터의 1/3 이상을 유치하고 제조업·운송 전기화가 수요 확대를 견인할 전망이다
- 중국이 세계 전기차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도·일본도 전기차·전동 운송 수단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기저부하 전원으로 천연가스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 천연가스는 아시아 내 생산에 한계가 있어 미국·카타르산 LNG 의존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30년까지 전 세계 LNG 수출량의 70%를 아시아가 흡수할 전망이다
- 아시아-미국 간 LNG 무역 규모도 최대 600억 달러(약 80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0) 투데이에너지(2025.08.12.), <https://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87328>(2025.08.21. 검색)

14) 화학공업
생산품



나프타 및 에틸렌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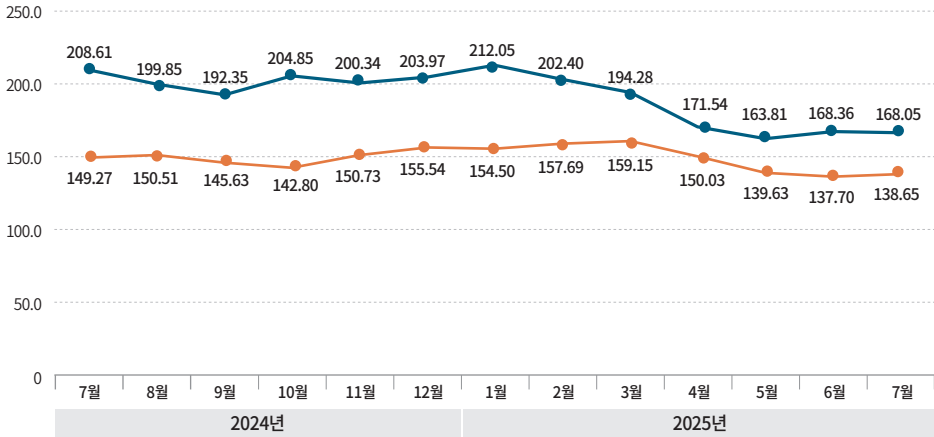
● 나프타
● 에틸렌

① '25년 7월 생산자물가지수, 나프타 소폭 하락, 에틸렌 소폭 상승

7월 나프타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하락한 168.05p, 에틸렌은 전월 대비 0.7% 상승한 138.65p를 기록함

- 원유 정제를 통해 생산되는 나프타의 '25년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원유 가격 하락이 시작된 1월 이후 동반 하락하였으나 6월에 상승한 다음 7월에 다시 소폭 하락함
- 나프타 크래킹 등을 통해 생산되는 석유화학산업의 핵심원료인 에틸렌의 '25년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나프타 생산자물가지수가 하락하면서 3월 이후 6월까지 하락했으나 7월에 소폭 상승함
-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불확실성으로 정유산업과 함께 전방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석유화학 업계 구조개편이 예정됨에 따라 변동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단위: 2020 = 100 기준)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나프타	208.61	199.85	192.35	204.85	200.34	203.97	212.05	202.40	194.28	171.54	163.81	168.36	168.05	-0.2	-19.4
에틸렌	149.27	150.51	145.63	142.80	150.73	155.54	154.50	157.69	159.15	150.03	139.63	137.70	138.65	0.7	-7.1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12\(2025.08.21.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12(2025.08.21.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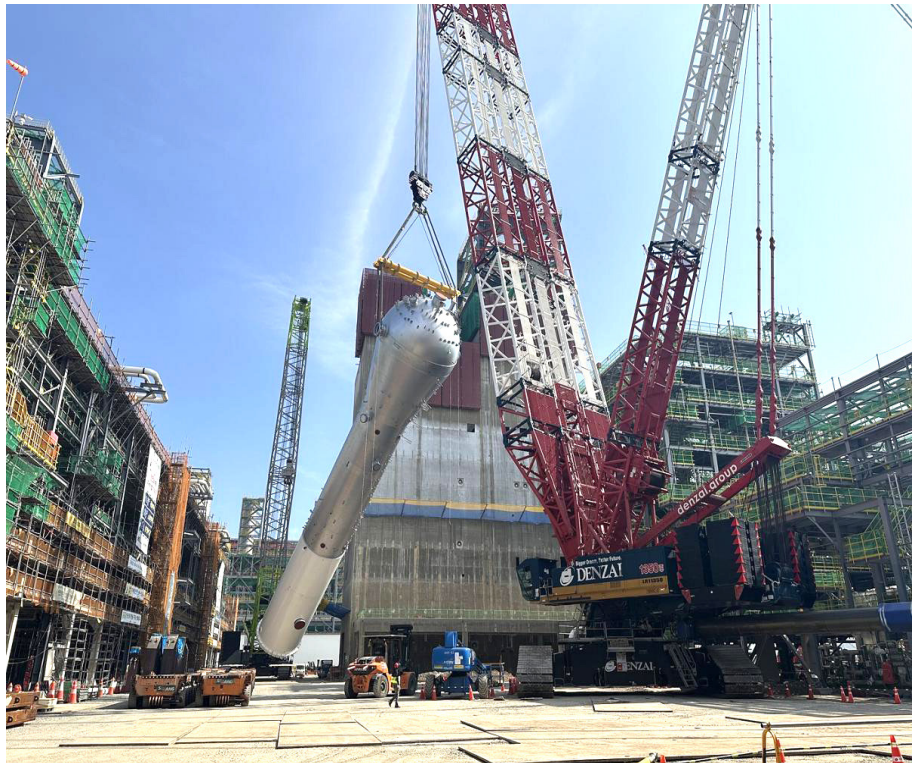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② 현대엔지니어링, 사힌 프로젝트 핵심 설비인 리액터 3기 설치⁵¹⁾

현대엔지니어링은 에쓰오일의 ‘사힌 프로젝트 패키지2’ 현장에 폴리에틸렌 공정용 리액터 3기의 설치를 완료함

- 설치된 리액터는 높이 46m, 지름 5.5m, 무게 505톤으로 국내 석유화학시설 중, 최대 중량물 설비에 해당함
- 1,800톤급 크롤러 크레인과 600톤급 테일 크레인 동원되었으며, 약 80m 높이 인양 후 철골 구조물 기초부에 안착시킴
- 사힌 프로젝트는 에쓰오일이 총 9조 3,000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 중인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이며, 완공 시 에틸렌 180만 톤, 프로필렌 77만 톤, LLDPE 88만 톤, HDPE 44만 톤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힌 프로젝트 현장에
설치 중인 리액터



자료: 동아일보(2025.08.12.),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0812/132171128/1>(2025.08.21.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1) 동아일보(2025.08.12.),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0812/132171128/1>(2025.08.21. 검색)

3 정부, 석유화학업계 구조개편 추진⁵²⁾⁵³⁾

석유화학 강국이었던 일본은 정부 주도하에 과감한 구조조정을 강행하여 성공함

- 일본 경제산업성, '14년 보고서 통해 에틸렌 생산 30%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제공함
-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는 공정거래법 등 각종 규제는 예외 인정하였으며, 특정산업 구조개선임시조치법을 마련하여 공동 투자, 합작·통폐합 등이 가능토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기업들은 범용 제품 감축 후, 중국이 따라잡지 못한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에 집중하였으며, 제품별 생산설비가 한 곳에 집중되면서 분야별 선도 기업이 나오게 됨
- 일본은 현재도 '28년까지 에틸렌 설비 280만 톤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며, 전체 생산능력은 한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될 예정임

우리나라 정부도 개입을 강화하면서 구조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음

- 정부는 '석유화학 구조개편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업계에 자발적 감산·통폐합을 촉구함
- 산업부 장관은 무임승차 기업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단호한 대응을 경고하며, 조선업 구조조정 사례와 비교함
- 다만, 업계는 '먼저 줄이면 손해'라고 여기는 치킨게임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대주주 간 갈등과 이해관계 충돌로 합의의 난항이 예상됨
- 정부는 자율 합의를 유도하되, 필요시 개입해 속도를 낸다는 방침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2) 한경닷컴(2025.08.1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1266591>(2025.08.21. 검색)

53) 한경닷컴(2025.08.14.),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1418211>(2025.08.21. 검색)

4 여천NCC, DL그룹의 자금 지원 결정으로 기사회생⁵⁴⁾

- 여천NCC는 연말까지 3,000억 원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DL과 한화가 각 1,500억 원 긴급 수혈함
- 한화와 DL이 공동 대주주인 여천NCC는 국내 3위 에틸렌 생산업체이나 업황 악화로 '22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장기화됨
- 여천NCC는 원료 구매·급여 등 단기 지출에 1,800억 원이 필요하며, 회사채 만기 상환 및 설비 가동을 위한 운전자금 등 연말까지 총 3,100억 원 필요함
- DL케미칼은 이사회를 통해 1,500억 원 대여를 결정했으며, 한화솔루션도 같은 규모 지원을 약속하면서 부도 위기는 넘김
- 다만, 한화는 추가 자금 투입·재무구조 개선을 주장하고 DL은 공급가격 조정·중장기 대안 강조하는 등 대주주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추가적으로 정부 차원의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이 예정되어 있어 언제든 위기설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4) 국민일보(2025.08.15.),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55163630&code=11151400&cp=nv\(2025.08.21. 검색\)](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55163630&code=11151400&cp=nv(2025.08.21. 검색))

연구책임자

최석우 항만수요분석연구실장

연구진

신정훈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화섭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조아현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최상균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감리

김근섭 항만연구본부장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5년 8월 29일

편집·발행인 조정희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편집디자인 크리커뮤니케이션 **TEL** 02-2273-1775